

수기

일심단결된 내 조국의 참모습을 보았다 (1)

나는 이번 조국방문의 나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는 행운을 지니었다. 이는 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영원한 기념으로 된다.

공화국의 선거는 실로

특이하고 희한한 선거풍경

내가 조국에 도착한것은 선거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해외에서 조국의 선거에 대한 보도를 너무도 많이 들었던지라 무엇보다 그에 마음이 쏠렸다.

그런데 조국의 선거분위기는 내가 생각했던것과는 너무도 판이하였다.

우선 선거경쟁 같은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선거전선 자체가 사회적목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있었다.

TV에서는 선거관련 노래들이 울려나오고 신문에는 선거참가를 독려하는 기사들이 실리고있었다. 조국인민들을 만나보아도 모두가 공화국의 공민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로력성격파로 선거를 뜻깊게 맞이하려는 애국의 일념뿐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본적도 있고 유럽의 의회선거도 목격했던 나로서는 실로 예상밖이었다.

언제인가 유럽신문에 이런 글이 실린적이 있다.

《...선저철이 다가올 때면 (지옥의 건설)을 맞이하는 느낌이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미쳐달뛰는 정상

세상에 다시 없을 희한한 선거였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경이적인 선거에서 위대한 내 조국의 위상과 참모습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은 감동과 기쁨을 조국방문소감으로 적어본다.

배, 정치인들의 추한 모습들, 후보들간의 퍼터지는 싸움판, 테로조직이 공공연히 활개치며 조성하는 공포의 분위기, 사람들을 선거장으로가 아니라 지옥으로 끌여가는 환각에 빠져들게 한다.》

실지로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에서는 더 많은 돈뿌리기 경쟁, 인간성과 도덕성마저 제버린 후보들간의 추악한 기싸움, 비방중상, 모략의

살풍경이 펼쳐지는것이 상례로 되고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도 서방과 같은 현상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선거당일의 풍경 또한 지울수 없는 인상을 안겨주었다.

3월 9일 아침 나는 다른 해외동포들과 함께 제18호 보통강선거구의 한 선거장으로 갔다.

선거장은 온통 명절분위기였다. 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선거날을 명절날처럼 손꼽아 기다리고있던 유권자들이 흥겨운 춤판을 벌리고있었다. 로인들도 한데 어울려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추어 어깨를 들먹이는 광경은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풍경,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을 내고도 볼수 없는 장관이었다.

유권자들의 태도 또한 진지하고 정중하였다.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다가 받아든 선거표를 애국의 증표로 여기며 찬성의 한표를 바치는 조국의 유권자들, 권력이나 금력에 따라 아무렇게나 선거표를 던져버리던 그만인 사방사회의 유권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선거를 대하는 조국인민들의 관점과 열의는 단순히 한표를 가진 유권자로서가 아니라 나라를 받드는 기동, 주인으로서의 긍지의 발현으로 여겨졌다. 가장 고마운 정권, 세상으뜸의 제도에 대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흥겨운 춤판을 펼친 선거자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나라

때로 공화국인민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곤 한다.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고마운 시책과 사회적혜택을 다 알고있는가.

사실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국가로부터 받는 인민적시책들가운데서도 전반적무로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등 인민적시책들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시책들이다. 이밖에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건설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요양, 세무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혜택들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이러한 사회적혜택들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있다. 2012년에 진행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인재육성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뜻깊

은 사변이다.

이를 두고 많은 나라의 출판물들은 조선에서의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 CNC기술과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고 평하였다.

공화국에서 국가적,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 역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중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병 또는 부상, 가족의 병간호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급속로돌환한에 따라 해당하는 생활비를 주는 일시적보조금제도, 산전산후보조금제도 등이 있다.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담사 및 야양, 정휴양에 필요한 비용들도 국가사회보협에서 지출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산들과 경치아름다운 곳들에 휴양소들이 설립되어 휴양생들이 등산, 휴외곽,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문화적이며 유쾌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해주고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제도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최근년간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하여 온 나라 각지에 수많은 살림집들이 일떠섰다.

만약 개인들이 현재살림집사용료를 가지고 국가에서 투자인 살림집건설원가를 보상하자면 몇백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것만 보아도 공화국에서 인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 있다.

공화국에 와서 수많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는 현실을 본 로씨야의 한 정계인사는 《조선식사회주의는 실천을 통해 자기의 생활력을 증명하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이 사회주의를 노동자와 같이, 친여머니, 친아버지처럼 옹호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생활의 순간마다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고마운 제도에 사는 긍지와 행복감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송철민

절수 없다.

그릴 때면 누군가가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미국이 없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거레에게 재난을 들뜨우기 위해 남조선에 가증스러운 핵무기를 끌어들이민 미국이다.

《난례적》이라는 허울좋은 낙관만에 악마들이 벌리

위성이 하늘로 솟구쳐오를 때 왜 그처럼 울며 기뻐했는 지 미국은 알아야 한다.

자주의 나라, 고마운 녀성 존중의 정치가 있어 우리 녀성들의 아름다운 삶도 있고 가정과 자식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모든것을 빼앗으려 하고있다.

값없는 인간의 존엄을 지

3월의 조선녀성들

는 전쟁연습은 해마다 3월이면 그 광풍이 절정에 달하곤 한다.

그래서 3월이면 이 나라 녀성들의 가슴속에는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세차게 끓어번진다.

우리 녀성들이 왜 미국을 증오하는지, 어째서 끝까지 결산하려 하는지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녀성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위의 퇴성이 울리고

키기 위해,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소중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공화국의 군민은 허리띠를 조이며 힘을 키웠고 하여 그 힘을 가질수 있었다.

조선녀성들은 외유내강하다.

이제 두고보라.

우리 녀성들은 목숨으로 지켜온 자존의 고귀한 정신으로 자식들을 강하고 존엄있게 키워 조국앞에, 세계앞에 훌륭하게 내세울것이

며 그렇게 자란 우리 자식들은 머지않아 모든데서 미국을 압도하게 될것이다.

그때 가서 미국은 우리를 흉내낼수도, 따라올수도 없을것이다.

이전에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에 광분하여 미쳐달뛰는 적대세력들의 머리위에 철추를 내리며 공화국의 자위의 로케트들이 기세차게 하늘로 날아오른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심신을 안겨주며 3월을 더욱 이례롭게 해주었다.

정의의 보검을 안아온 위대한 선군이 있어 우리 녀성들의 마음은 그토록 한결 그늘없이 밝은것이 아닌가. 존엄높은 강국에서 값없는 삶을 누리려는 행복감과 자부심에 넘쳐있는 이 나라의 녀성들은 이 땅위에 하루빨리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이루어지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애국의 열의에 넘쳐있다.

차은정

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출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헌데 말이 조국을 방문했던 한 해외동포가 조국인민들의 손에 쥐어진 선거표는 자본주의사회와 같이 찬반을 표하는 《알림문》이 아니라 굳건한 일심단결의 성세를 쌓는 《성들》이라고 한적이 있는데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장에 펼쳐진 황홀경 하나만으로도 내 조국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화목한 사회라고 소리높이 자랑할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했다.

이번에 주조 나이지리아, 몽골, 영국, 인도네시아사관 성원들과 중국,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등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외민들이 평양시내의 여러 선거장들을 참관하고 대의원후보자들도 만나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선거장의 분위기가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는 선거장과 기쁨에 넘친 선거자들의 모습에 한결같이 감탄을 표시한것은 너무도 웅대한것이다. 그들도 나처럼 공화국에서와 같은 독특한 선거는 처음 보았을것이다.

참으로 선거장은 평범하여도 거기에 펼쳐진 희한한 풍경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나라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한 공화국의 참모습에 대한 또 하나의 생생한 증견장이었다.

재중동포 김정민

호평받는 국내산 상품들

*평양제1백화점

좋아하는 평양곡산공장의 옛도 있다. 박천전직공장에서 생산한 색깔있는 마산단요와 불가용포단, 이불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통라》뽕과 《봄빛》뽕도 있다. 류인신발공장에서 만든 가법고 맛있는 신발들,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에서 만든 장화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만든 비트론 인견천으로 만든 사썬들, 녀변전직공장에서 생산한 조선치마저고리감들과 비단천들, 정성도자기공장에서 만든 경질그릇들도 있다. 남의것 부럽지 않은 우리의 제품들이 자기 상품을 땀땀이 자랑하고있는것이다.

기자: 국내산 상품들에 대한 손님들의 인기는 어떤가?

김미영: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우리 백화점에서 팔아주고있는 룡성비단과 치즈류를 비롯한 자기 젓가공제품들과 선홍색로공장에서 만든 당과류, 뽕류들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특별히 좋아하고있다.

《코스모스》머리핀치매대와 《봄향기》와 《은하수》화장품매대들도 녀성들이 저마다 찾고있다. 특히 《코스모스》머리핀치는 우리 녀성들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주어 녀성들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비단제품이나 피복류도 마찬가지이다. 선교전직공장에서 만드는 내의들은 하나같이 가볍고 질기며 모란피복공장과 평양피복공장에서 만드는 양복들은 물론 《은

최근 공화국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들중에는 신문과 TV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들도 있다.

제44호 영제선거구 당선자인 문강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으로 일하는 그가 30대 초엽에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었다. 그는 공장에서 일을 잘해 수도의 한복안에 일떠선 창천거리의 새 집도 안고 또 자기 집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고 이렇게 서 부여주시는 사랑의 축배잔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녀성이다.

로동자가정의 유복녀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방직공장에 자원진출한 그는 애국의 열의를 안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바람이 휘몰아친 지난 2009년 150일전투기간에 21대의 직기를 맡아 천을 짜면서 5년분계제를 완수했다고 한다. 그는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공장의 소문난 혁신자로 되고 사람들이 누구나 《우리 직포공》이라 불러주는 인생의 행복속에 오늘날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것이다.

평천구역 도시시설관리소반장인 제17호 세마울선거구 당선자 조길너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었다.

15년동안 도로청소를 하면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성실하게 일한것으로 하여 직장과 주변사람들속에 《우리 반장》이라고 불리우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우월성을 실천으로 확증한 평양326전선공장 지배인 김석남은 제38호 룡동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공장경영관리를 짜고들여 생산을 부쩍 늘이고 종업원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시켜 전국에 소문이 났다.

백두산밀영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으로서 일하는 장인숙은 처녀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40년을 혁명사적조소를 지켜

《우리》와 《나》

가고있는 온 나라가 아는 혁명사적일꾼이다. 남달리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강의를 잘하여 《우리 강사》로 정답게 불리우는 그도 이번에 제639호 탐성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새로 선거된 대의원들모두가 《우리》라는 부름과 함께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면에 공화국의 선거제도나 그토록 비방하는 미국의 선거제도는 약육강식의 돈선거이고 개싸움무대이다.

《민주주의표본》이라고 자찬하는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인민대중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거를 한다.

《나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다면...》 화려한 그 거짓말에 속고 휘둘러주는 돈에 놀아나 국

회의원으로 뽑아주면 공약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자기를 위한 정치인생을 보내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현 집권자가 1기대통령선거때 평민들은 꿈도 꿀수 없는 무려 6억 4000만 US\$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뿌려 당선되고 2기대통령선거때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10억 US\$의 선거자금을 뿌려 돈경쟁에서 신기록을 세웠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돈으로 대통령감투를 산것이다.

미국의 선거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국회의 출판물들까지 《미국에서

백악관으로 가는 길은 오직 부유한자들에게만 열려져있다.》고 비난조소하였것는가.

그가 대통령선거간 자기에게 많은 돈을 섬겨바친자들을 대사로 임명하였는데 그렇게 임명된 대사들이 주재국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모르고 국회청문회에서 제기된 질문에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여 웃음거리가 된 사실은 《나》를 위한 선거결과가 낳은 웅대한 귀결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와 《나》!

이것은 《우리》라는 부름속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한 팍팍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 인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와 오직 《나》하나만의 영달과 권세욕을 위해 광범한 대중을 짓밟고 통치하는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판이한 두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고영숙

호평받는 국내산 상품들

김미영 상업부지배인과 나눈 이야기 *

《하》상표를 단 기성복들도 높은 수준이어서 계절이 바뀌는 요즘 사람들이 봄게절에 맞는 옷을 고르기도 하고 입고입어보기도 하면서 흥성이고 있다. 박천전직공장에서 생산한 담요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담요보다 그 질이 하도 좋아 수요가 높다.

우리 백화점에서는 대동강병맥주도 팔아주고있는데 손님들은 우리 맥주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너도나도 사가고있다. 사이타도 우리 랭천사이다가 좋다고 하며 생물이 우리의 룡악산생물, 동양생물이 좋고 약수도 우리의 강서약수가 제일이라고 말하고있다.

다른 나라 제품에 못지 않은 우리의것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것이다. 지금 손님들은 우리 제품들이 다른 나라 제품에 못지 않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질이 더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상품들이 몇몇만이 아니라 1년내내 인민들에게 차례지

게 하여야 한다고, 상품이 떨어지면 어느때건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시며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질 좋은 상품들을 평양제1백화점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정연한 상품보장제까지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공업전선을 농업전선과 함께 현시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라격방면으로 정해주시고 경영업무분공 공장, 기업소들에서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국내산 상품들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국내산 상품들을 더 많이 확보하여 팔아줌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해야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김미영 상업부지배인(왼쪽에서 두번째)

넉쳐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는 조선인민

외국인들의 반향

고있다.

조선인민은 이 모든것을 파감히 이겨내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투쟁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을 땅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 토르브 보르크만은 평화와 정의를 지켜 싸

우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문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신심과 락관에 넘친 조선인민의 기상은 놀라움을 자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대표단 단장 레이몬드 피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자랑스런 성과들은 세계 진보파력들을 깨닫게 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반드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